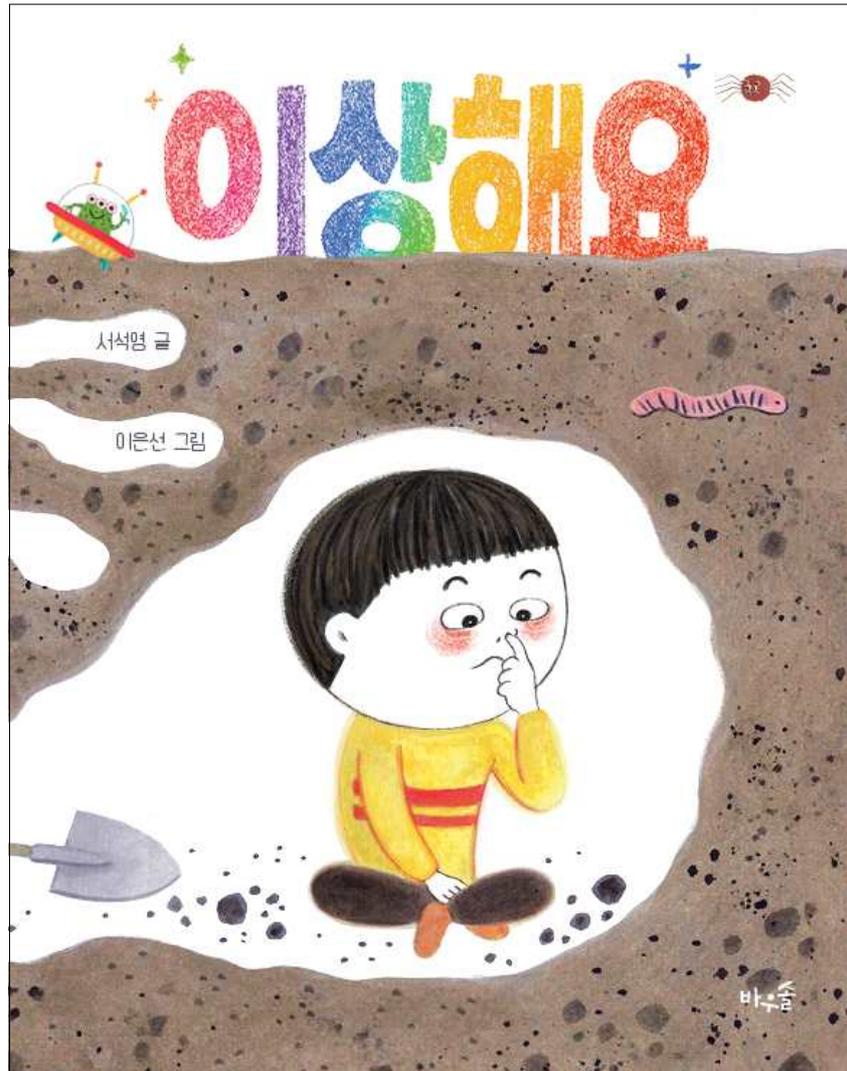


《이상해요》 독서지도안



아이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전부 이상해요!
이상해서 더 재미있는 세상, 당연한 일상을 뒤집어 보는 유쾌한 관찰기!

- 작가_ 서석영 글 · 이은선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거대한 모순 덩어리입니다. 엄마는 썩썩 크라고 하면서도 크는 게 아쉽다고 하고, 할머니는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는 시원하다고 말해요. 그러니 자꾸 “왜요?”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이상해요》는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이상한 순간’들을 아이의 목소리로 담아낸 유쾌한 관찰 기록 그림책입니다.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들이, 주인공 아이의 눈을 통과하면 거대한 수수께끼이자 흥미진진한 탐험이 됩니다.

“뜨거운데 시원하단가요?”, “몸에 나쁜데 과자는 왜 만들죠?” 어른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말과 행동도, 아이의 눈에는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크길 바란다면 크는 건 아쉬운지, 왜 단 건 몸에 안 좋으면서 사탕과 과자를 잔뜩 만들어 놓는지, 왜 매운 고추를 빨간 고추장에 찍어 먹는지…….

아이의 눈에는 일상 모든 장면이 조금씩 낯설고 이상합니다. 책은 장면마다 “이상해요.”라는 말을 덧붙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의 생각을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문을 가질 때 세상은 비로소 다채로운 색깔로 변합니다.

혹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아이의 질문 폭탄을 슬며시 피하진 않았나요? 세상이 따분하게 느껴지는 날, 아이와 함께 이 책을 펼치고 ‘이상한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일상이 다시 새록새록 반짝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마음껏 “이상해요.”를 외치며, 자신만의 재미있는 세상을 그려나가길 바랍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1학년 바슬즐 <사람들>, <탐험>, <하루>, <상상> 공통
2학년 바슬즐 <나>, <자연>, <마을>, <물건> 공통
1학년 1학기 국어 5. 반갑게 인사해요
1학년 2학기 국어 1. 기분을 말해요
4. 감동을 나누어요
5. 생각을 키워요
8. 느끼고 표현해요
2학년 1학기 국어 2. 말의 재미가 솔솔
5. 마음을 짐작해요
6.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요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상상하며
4. 마음을 전해요
7. 내 생각은 이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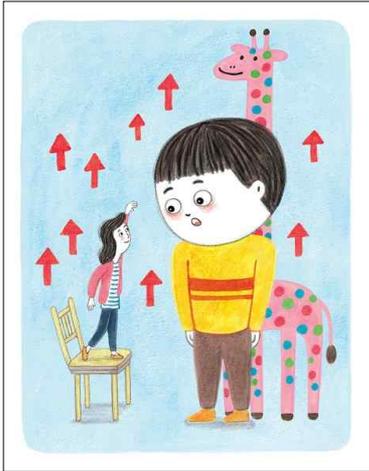
• 지도 요점 :

아빠는 장난감을 아이보다 더 잘 가지고 놀고, 할아버지는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뚝배기 국물을 시원하다며 태연하게 드십니다. 겨울에도 얼음 커피를 마시는 이모와 여름에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할머니.

여러분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는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있나요?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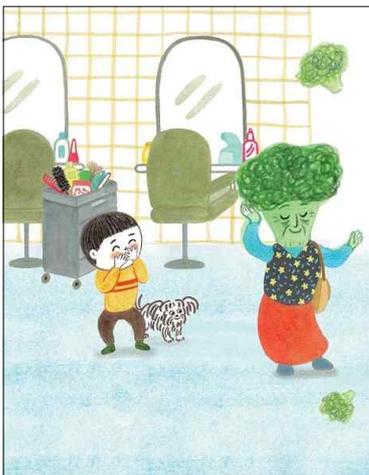
(1) 엄마는 내가 쑥쑥 자라 기쁘다면서 또 어느 땐 무엇이 아쉽다고 말하나요?



- ① 먹는 게 아쉽다
- ② 크는 게 아쉽다
- ③ 걷는 게 아쉽다
- ④ 뛰는 게 아쉽다

☐ -----

(2) 미용실 원장님이 만질수록 할머니는 무엇으로 변신하나요?



- ① 브로콜리
- ② 바나나
- ③ 고슴도치
- ④ 풍선

☐ -----

(3) 다음 중 주인공 아이가 보기에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할아버지는 뜨거운 국물이 뜨겁대요.
- ② 아빠는 장난감을 나보다 더 싫어해요.
- ③ 할머니는 뜨거운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시원하다고 해요.
- ④ 이모는 추운 겨울에는 뜨거운 커피를 마셔요.

☐ -----

(4) 벌새는 뒤로도 날고, 꼭 무엇처럼 제자리에서 뜨기도 하나요?



- ① 메뚜기
- ② 개구리
- ③ 거북
- ④ 헬리콥터



(5) 맨날 한 짝씩 사라지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 ① 목걸이
- ② 양말
- ③ 귀걸이
- ④ 머리핀



(6) 주인공 아이는 코를 잘 파서 무엇으로 불렸나요?



- ① 코딱지 대왕
- ② 코 파기 일인자
- ③ 코딱지 탐험 대장
- ④ 코 파기 선수



4. 확장활동

(1) 집은 왜 네모 모양 천지이고, 손에 잡힐 듯한 무지개는 왜 따라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세요!



(2) 민수는 먹기 싫으면 음식들로 이야기를 지어내요. 여러분도 먹기 싫어 음식으로 이야기를 지어낸 적이 있나요?



(3) 이 책을 읽고 난 뒤 세상은 어떤 곳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② 크는 게 아쉽다 | (2) ① 브로콜리 | (3) ③ 할머니는 뜨거운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시원하다고 해요. | (4) ④ 헬리콥터 | (5) ② 양말 | (6) ③ 코딱지 탐험 대장

확장활동

- (1) 엄마는 내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대요.
왕할머니는 아직도 우리 엄마를 '아기'라고 불러요. 등
- (2) 콩이 먹기 싫어서 강아지가 먹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브로콜리가 먹기 싫어서 벌레가 나왔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등
- (3) 즐기고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는 멋진 곳이에요.
이상한 일이 가득해서 정말 재미있는 곳이에요. 등